



◇보조 스님



◇탄허 스님



◇각성 스님



◇이기영 박사

보조국사가 밝힌 '참마음' 은?

'진심직설 다시 읽기'

손창대 엮음
교림 / 1만9천원

불일보조(佛日普照: 1158~1210) 국사의 선사상을 간결하게 서술한 <진심직설(眞心直說)>.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지은 많은 글 가운데 후세 학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책이다. 이 책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주에서 가장 근본 되는 것이 '참마음(眞心)임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 참마음을 밝게 드러내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진심직설>은 일반 불자들에게는 널리 읽히지 못했다. 어려운 한문으로 쓰여진 데다 선(禪)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화엄학회장 손창대 박사가 엮은 <진심직설 다시 읽기>(교림)는 참마음에 대해 보조스님이 깨달은 바를 자상하면서도 군말없이 전하는 해설서가 될 것이다. 원문 <진심직설>에 탄허 스님이 토를 달고(懸註) 이기영 박사가 강의했으며, 각성 스님이 감수하고 발문(跋文)을 썼으며 손창대 박사가 현대 국어로 읽기 쉽게 편집했다. 엮은이 손창대 박사는 "이번에 우리 마음의 요체를 간명하게 밝힌 <진심직설>만을 따로 뽑아

바른 마음 · 깨달음 · 수행 · 체득의 요체 제시

한문 · 한글 번역 · 주석 · 강설... 공부하기 쉬워

간행한 이유는 이 책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간결한 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부처임을 확인한 후 뒤음을 길을 가야 한다"는 보조 국사의 돈오점수 사상체계를 따르고 있는 <진심직설>은 참마음의 본체와 현상, 작용을 근본으로 한 바른 믿음(信), 바른 깨달음(解), 바른 수행(行), 바른 체득(證)의 요체를 간단명료하게 밝힌 명저다. 참마음의 바른 믿음(眞心正信), 진심의

다른 이름(眞心異名), 진심의 묘용(眞心妙用) 등 15항에 걸쳐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해설한 책이다.

특히 참마음이 고스란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열가지 공부방법을 제시한 '진심식량(眞心息妄)' 장은 오늘날 생활속의 마음공부법으로도 적절하다. 그 열가지 잘못을 없애는 공부 가운데는 △일체 사사비비를 가리는 마음을 쉬게 하는 공부(休歇) △객관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공부(眞境存心) △마음과 객관세계가 일체(內外全體)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하고 만들고 나누어 가지는 일들이 다 참마음의 작용임을 아는 공부(內外全用) △나와 바깥세계를 가리지 않고 대혜탈 속에서 위화감 없이 한덩어리가 되어 사는 공부(透出體用) 등 수행법이 들어있다.

김용정 동방문화대학원장은 "이 책은 보조국사의 명저에 탄허스님의 완전무결한 현토, 이기영 박사의 원효사상 연구와 손창대 박사의 화엄 및 보조사상 연구가 어우러진 결과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ews.com



요가철학

'요가철학'

이태영 지음
여래 / 8천원

물질세계에 가린 정신회복 과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된 여러 부류의 요가행법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는 하타요가(hatha-yoga)와 라자요가(rajā-yoga)를 꼽을 수 있다. 하타요가는 육체적인 조절법을 위주로 하며 라자요가는 심리적 명상수련에 중점을 둔다.

그런데 요가의 정전(正典)이라 할 수 있는 <요가수트라>에는 윤리적 단계에서부터 육체적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리적 수행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기술된다. 금계(禁戒) · 권계(勸戒) · 좌법(坐法) · 조식(調息) · 제감(制感) · 응념(應念) · 정려(靜慮) · 삼매(三昧) 등이 그것이다. 육체 · 심리적 양 부류의 실천법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요가수행의 전반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저자는 <요가>(여래)를 출간한 적이 있고 이번에 <요가철학>(여래)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수행법을 계승해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전자 실천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후자는 철학적 근거에 대한 조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들 저작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전에 입각한 균형 잡힌 요가서'로 평가할 수 있겠다.

요가의 실천법은 고대 인도의 거의 모든 종파에서 수용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요가라는 용어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여러 학파에서 거론하였다. 대승불교의 유식학과(唯識學派)는 유가행파(瑜伽行派, yogacārya)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지는데, 번역하면 '요가의 스승'이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고대인도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베단타 학파'에서도 요가는 상당한 비중을 지니는데, 현대의 인도도들에게는 베단타의 교설이 요가 본래의 그것으로 인식되는 경향마저 있다.

따라서 요가의 온전한 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가수트라>부터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요가수트라>는 물질세계(prakṛti)와 정신성(puṇsa)이라는 이원론적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현대 인도사상의 주된 흐름을 이루는 일원론적 경향과 분명히 구분된다. 더불어 요가의 심리학은 정통 힌두철학이 아닌 불교의 영향 아래에

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요가수트라>에 나타나 는 고유의 사상에 대해 살펴본 이후에, 주변의 이론에 대한 고찰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가수트라>의 중심 과제는 어떻게 해서 물질세계에 가린 정신성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요가수트라>의 해답은 사별지(vivēka)이다. 즉 현상적으로 드러난 세계와 참자아가 본래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물질세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따라서 '지혜에 의해 해탈이 있고 무지에 의해 속박이 있다'는 교설은 <요가수트라>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요가의 실천론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이란 참된 본성인 정신성을 물질세계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한 동일시야말로 범부의 일상적 의식이 갖는 특징으로서 무지이다. 따라서 요가의 수련은 무지에 사로잡힌 일상 의식을 가라앉히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삼매의 상태란 그러한 의식이 가라앉은 정도를 단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며, 식별이란 바로 거기에서 발휘되는 초월적 지혜를 가리킨다. 궁극의 경지는 이렇게 해서 드러난 식별지에 의해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고 난 이후의 상태를 가리킨다.

<요가철학>의 전반부, 즉 제 1장에서부터 제 3장까지는 이상과 같은 요가사상의 기본 틀로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조망으로 할애된다. 그리고 제 4장과 제 5장에서는 심리학과 수행론이라는 테마로서 전반부의 형이상학을 실천적인 측면에 접목시킨다. 마지막에는 부록으로서 <요가수트라>의 산스크리트 원문과 번역문이 실려 있다. 이러한 <요가철학>의 내용구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요가의 사상체계 전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평이하고 명료한 문체는 기존의 전문학술서와는 달리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지나칠 만큼 간결한 내용전개의 양상은 소위 '요가철학'의 맛을 실감나게 음미해 보는데 있어서 하나의 아쉬움이다.

■임성택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 책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고전요가 연구로 박사학위(동국대 인도철학과)를 받은 한국요기연구원 이태영 원장의 수행 체험과 학문적 연구결과의 종합물이다.

요가심리학 불교영향 받아 형성

사상체계 전반 일목요연하게 정리

문화교류차원 한일관계 조명

'일본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홍윤식 엮음
솔 / 1만5천원

<일본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는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쓴 8편의 논문을 통해서 불교, 유학, 신화, 건축, 음악, 연극, 미술 등 양국의 문화교류를 논증하고 있다.

이 책에서 동국대 홍윤식 명예교수는 '고대 일본 불교에 미친 삼국 불교의 역할'이란 논문을 통해 '6-8세기에 걸쳐 불교를 국교로 만든 일본 불교는 전적으로 백제 등 삼국 불교의 영향과 지원 하에 발전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 테스카야마대 가와다 사다무 교수는 '일본 전래 불교 공예품을 통해 바라본 7, 8세기 일본과 신라의 교류'란 논문에서 신라의 불교 공예품이 일본으로 대량 수입되어 일부는 귀족이나 승려의 식기로 제공 되고, 도다이사(東大寺) 등에서 음식 공양도구로서 불전에 올려졌다고 주장, 일본인 스스로 그들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삶과 수행의 귀결점은?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초능력'

변성식 지음
현암사 / 1만2천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세계 초능력'은 기(氣)의 세계, 영혼, 꿈, 풍수지리, UFO 등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루며, 이러한 현상들을 검증하려고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소개하고 있다. 영남일보 기자인 변성식씨가 직접 취재한 기사와 사진들로 엮은 이 책은 생생한 현장감마저 준다. 하지만 이 책이 초자연적인 이야기 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능력과 기(氣)', '초능력의 끝, 깨달음'이란 장에서는 명상, 참선 등 정신적 수행을 강조하며 성철, 서암, 서용 스님 등 큰스님들의 법문과 인터뷰 기사를 다루기도 했다. 저자는 초능력자도 깨달음이 없다면 진정한 능력자가 아님을 지적하고, 오히려 큰스님들의 평상심이 진정한 초능력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책은 흥미와 정신적 수양이라는 두가지 소재를 통해 인간의 삶과 수행의 귀결점이 어디인가를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화와 상식, 두 권의 책을 한 권에...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

- 가죽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불교입니다.
- 해 해이 담긴 만화와 교양이 되는 불교상식을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수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에 법보시나 선물용으로도 최고!

공정권일 · 그외 권정일 | 보원 272쪽
4·6면판만 권당 10,000원

불교설법전서 9권 발간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
모두 구입하실 경우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불교설법전서>는
행사 · 교리 · 불사 · 비유설화 · 시사 등
살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1권(500쪽) 3만원	6권(1016쪽) 5만2천원
2권(586쪽) 4만1천원	7권(1054쪽) 5만2천원
3권(612쪽) 4만1천원	8권(1290쪽) 5만2천원
4권(750쪽) 4만1천원	9권(1220쪽) 5만2천원
5권(720쪽) 4만1천원	

지금 이가에서 100% 행복해지는 연습

실험처럼 살·아·라

"읽는 순간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

이 책에서 페마 최빈 스님은 우리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유머, 용통성, 용기, 지혜의 원천을 찾아 주는 수행법들이 가득 담겨 있다.

페마 최빈 스님 · 진무기 엮음 | 한국민영출판 | 보원 176쪽 | 값 8,900원

神妙章句大陀羅尼 講解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불자들이 수지 독송해온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말로 풀이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위우고 있고 싶다면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찌든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하다.

저자 원근 · 원형 신국민 엮음 | 보원 209쪽 | 값 10,000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본각스님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전송 (02)722-876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3호 E-mail : sulpub@hananet.net